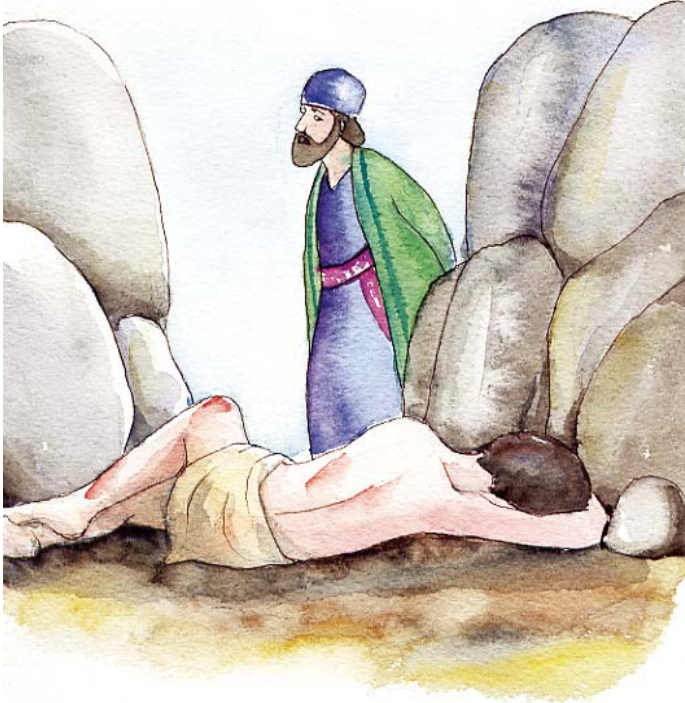


# 선한 사마리아인

누가복음 10장 25~37절



어떤 <sup>1)</sup>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.

“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?”

“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?”

“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 
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.”

“맞다.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.”

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물었습니다

“내 이웃이 누구니까?”

<sup>1)</sup>율법사 :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.

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 
하라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 
(갈라디아서 5:14)



38

예수님께서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

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.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여 놓고 갔다.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보고는 모른체 피해 갔다. 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았으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.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는데, 한 <sup>1)</sup>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.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 주고,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왔다.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<sup>2)</sup>두 데나리온을 주고 맡기며, ‘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.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소.’ 하고는 갔다.

“네 생각에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 
사람의 이웃은 누구냐?”  
“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.”

예수님께서서는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.

“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.”

<sup>1)</sup>사마리아 사람 :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생각하고 무시했다.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싫어했다.

<sup>2)</sup>두 데나리온 : 약 24일 숙박비(어른 일꾼이 아들 일할 품삯).

## 오늘의 공부

1.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나요? 만난 사람들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.

-----

2.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?

-----

3.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? (      )

가. 죽게 된 사람이 불쌍해서

나.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해서

다. 보는 사람이 없어서

라.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

4.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,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유대인을 보고 도와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
-----

-----

5.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, 우리를 구해주고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?



# 오늘의 말썸을 배우고

1.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 
모두 골라 보세요.

-----

-----

-----



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.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.

- ① 형제, 자매들이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.
- ②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.
- ③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.
- ④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.
- 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.

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     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      하라 하는  
이것이니라 (요한복음 15:12)

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,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.

3.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적어 보세요.

제목 : 내 이웃을

내 이웃을 이름 :

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:

언제 할까? :

도와주고 나서 느낀 점 :



## 예 화

### \* 누가 내 이웃인가?

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불평을 합니다.

“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.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릅니다.

욕심 많고 싸움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동네를 찾아 이사를 갑니다.”

그 사람이 간 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해 왔습니다.

그 사람은 이삿짐을 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

“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, 무식하고

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

그래서 이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

볼까 하고 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.

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

그 사람들을 힘 닿는 대로 도우려고 합니다.”

누가 좋은 이웃일까요?



부모님  
난

선생님  
난